조계종 내년도 예산 893여 억원 확정

중앙종회 정기회서 예산안 승인
일반275억 · 특별 618억원 편성
10% 감액… '긴축 재정' 예상돼

의제법 · 총림법 등 개정안 가결
선관 위원 선출 등 인사안 처리
논란이된 정운스님 징계안 이월


조계종 중앙종회는 11월 12월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제219회 정기회를 속개하고 의사일정을 진행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조계종 중앙종무기관 내년도 예산이 893억 8400여 만원으로 확정됐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정문)는 11월 12월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제219회 정기회를 속개하고 의사일정을 진행했다. 정기회인만큼 중앙종회는 '불기 2565(2021)년도 중앙종무기관 세입 · 세출 예산안'을 심의하고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내년 조계종 중앙종무기관 총예산은 893억 84%만 5000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일반회계는 지난해보다 20억 4713만 5000원(-6.92%) 감액한 275억 3627만 5000원으로 편성됐으며, 특별회계도 지난해보다 140억 8552만 5000원(-18.55%) 줄어든 618억 4869만 원으로 책정됐다.

조계종 중앙종무기관 예산이 전년 대비 10% 가량 감액된 것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일선 사찰들의 재정 수입이 줄면서 분담금을 감액 편성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종단 홍보를 비롯한 불교문화 · 미술 · 음악 진흥, 포교단체지원 등 지원사업들의 예산과 기관 운영 · 관리 예산들이 전반적으로 축소됐다.

특별회계예산은 전년 대비 약 18%가량이 줄었지만, 조계종 현 집행부의 주요 사업인 '백만원력 결집불사' 관련 예산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예산이 편성됐다. 불교요양원 설계 예산으로는 3억 원이 책정됐으며, 계룡대 흥제사 건립 불사 예산으로는 20억 원이 배정됐다. 인도 부다가야 분황산 건립불사에는 36억 원이, 경주 남산 열암곡 마애불 세우기 사업에는 1300만 원이 각각 편성됐다.

예산 설명을 진행한 조계종 기획실장 삼혜 스님은 "코로나19 영향으로 분담금과 관람료분담금을 모두 감액 편성했다"면서 "이를 추계해 중앙종무기관 예산을 전년 대비 10% 가량 감액해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법계별 가사 조수의 규정을 통일하고 문화재관람료 면제 기준을 '문화재보유사찰위원회'에서 논의할 수 있게 만든 것도 이번 정기회의 성과다.

법계법 시행령이 스님들의 가사 조수를 달리 규정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의제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계종 스님들의 가사 조수가 법계별로 통일 · 규정하게 됐다. 의제법 개정에 따라 현행 법계 5급 이상에 9조 가사를, 3급 이상에 15조, 1급 이상은 25조 가사를 수하게 된 것을, 견덕 · 계덕에 9조, 중덕 · 정덕에 13조, 대덕 · 혜덕에 15조, 종덕 · 현덕에 19조, 종사 · 명덕에 21조, 대종사 · 명사에 25조 가사를 수하도록 변경됐다.

하지만 개정 과정에서 일부 비구 의원들은 "명사 법계의 가사 조수가 대종사 법계의 가사 조수와 동일해서는 안 된다"며 비구와 비구니 법계가 동일한 가사 조수를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문화재 관람료 면제 범위를 조율하기 위한 사찰문화재보존및관리법 개정안은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에 따라 어린이, 장애인, 노인, 국가유공자는 면제 대상 조항에서 삭제됐으며, 대신 '어린이, 장애인, 노인, 유공자 및 군인 등의 면제 기준은 문화재보유사찰위원회에서 정한다' 조항을 신설해서 면제 기준을 논의할 수 있게 했다.

총림법 개정안은 최근 법계법 개정에 따라 대종사 법계 품수를 하는 스님들이 증가하면서 총림 임회위원이 급증해 임회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상정됐다. 발의된 개정안에는 당연직 임회위원 중 '법계 대종사인 재적승'을 삭제토록 했으나, 논의를 거쳐 '재적 원로의원'으로 수정해 통과됐다.

1회에 한해 재적본사를 이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재적본사 전적 특별법 제정안은 교구별 선거권 및 피선거권 혼란과 교구별 중앙종회의원 의석수 조정 등에 대한 문제가 제기돼 차기 회의로 이월했다.

또한, 중앙종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 선출 등의 종단 인사안을 처리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으로는 혜민 · 선우 · 진산 · 현담 · 법해 스님이 선출됐으며, 종립학교관리위원으로 효신 · 탄탄 스님이 선출됐다.

총무원장이 제출한 법계위원과 교육원장이 제출한 고시위원 위촉 동의의 건도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법계위원에는 원경 · 경일 · 무관 · 동광 · 현고 · 정여 스님이, 고시위원에는 수진 · 일귀 · 대전 · 승원 · 무애 · 여연 · 상덕 · 수경 · 운산 스님이 위촉되는 것으로 결의됐다.

최근 불교신문 칼럼으로 논란이 된 비구니 중앙종회의원 정운 스님 징계안은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정운 스님이 회의에 불참했고 소명 절차가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제기돼 내년 3월 임시회로 이월됐다.

또한, 법원 스님(직할교구) 외 13인의 스님이 발의한 '중앙종무기관 조직 개편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은 공감대 형성과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철회키로 했다.

조계종 원로의원 우경 스님 추천

정기회서 만장일치… 대종사 · 명사 특별전형 동의도



조계종 원로의원에 제주 관음사 회주 우경 스님<사진>이 추대됐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정문)는 11월 12일 속개한 제219회 정기회에서 원로의원에 우경 스님을 만장일치로 추천했다.

우경 스님은 고암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으며, 재적본사는 관음사다. 1955년 신흥사서 고암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65년 범어사서 자운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백련사 주지를 역임했으며, 현재 제주 관음사 회주로 주석 중이다. 원로의원으로 추천된 우경 스님은 향후 원로회의에서 재적과반수 출석과 출석 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최종 선출된다.

이와 함께 중앙종회는 대종사 법계 특별전형과 명사 법계 특별전형 동의의 건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대종사 법계 특별전형 동의가 통과됨에 따라 능엄(직할교구) · 청화(직할교구) · 종상(직할교구) · 함주(법주사) · 지명(법주사) · 의현(은해사) · 법달(불국사) · 관우(불국사) · 수성(해인사) · 성주(해인사) · 천제(해인사) · 중천(해인사) · 혜장(해인사) · 청현(송광사) · 현문(송광사) · 범종(송광사) · 현봉(송광사) · 우경(관음사) · 혜산(선운사) · 법현(선운사) · 대우(선운사) · 범여(선운사) · 재곤(선운사) 스님 등 총 23명의 스님이 대종사 법계를 품수받는다.

비구니 명사 법계 특별전형 동의가 가결되며 명수(직할교구) · 혜준(직할교구) · 명우(직할교구) · 묘순(직할교구) · 성일(용주사) · 육문(은해사) · 일초(해인사) 스님 등 총 7명의 스님이 명사 법계를 품수받게 됐다. 신성민 기자

조계종 제32회 포교대상에 보광 스님

혜도 스님 등 공로상 4명… 11월 25일 시상식



포교 전법 현장에서 꾸준히 활약해 온 불자들을 치하하는 조계종 포교대상에 보광 스님<사진>이 선정됐다.

조계종 포교원은 11월 9일 포교대상 심사위원회를 통해 제32회 포교대상 대상(종정상) 수상자로 동국대 前 총장 보광 스님(성남 정토사 주지)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대상 수상자로 선정된 보광 스님은 남다른 포교 원력으로 한국 불교학 저변 확대에 크게 공헌했다. 가장 대표적인 업적은 선문헌 연구의 기틀을 다진 것이다.

보광 스님은 32년간 동국대 선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선수행자의 필독서로 꼽히는 조동종 개산조 도겐 스님의 〈정법안장〉 역주를 진행하고 있다. 학문 연구와 함께 전법포교에도 앞장서 2010년 성남시 청계산 자락에 '정토사'를 창건했다. 또 '만일염불 결사회'를 조직하여 하루 1000번 이상 염불, 108배 생활화 및 각종 법회와 철야 염불기도 진행하는 정토염불신행을 이끌고 있다.

조계종 포교원은 이날 제32회 포교대상 공로상(총무원장상) 수상자로 한마음선원 부산지원장 혜도 스님을 비롯해 수암 스님(화계사 주지), 최대경(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 부산지회장), 이연화(제10교구본사 은해사신도회 회장) 씨도 선정했다.

혜도 스님은 1987년부터 현재까지 한마음선원 부산지원장으로 주석하며, 어린이회 학생회 청년회 부산대 불교대학생회 등을 적극 지원해 활성화시켰다. 한마음유치원을 운영하는 등 불교 미래를 위한 전법포교에도 앞장서고 있다.

원력상(포교원장상)에는 묘장 스님(학도암 주지), 성연 스님(서운암 감원), 보운 스님(군종교구 원광사 주지), 김행규(전국교정인불자연합회 회장), 이옥희(동화사 신도), 최은주(봉은사신도회 사무총장), 김나희(좋은벗풍경소리 팀장), 봉선사 포교사회, 선본사 발심회가 선정됐다.

한편, '제32회 포교대상 시상식'은 11월 25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 2층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봉행된다. 노덕현 기자

本紙 '코로나&불교' 언론문화상 우수상

대상 BBS '서릿날동안거' 선정
'마음꽃TV' 뉴미디어 우수상도

코로나19 확산 이후 본지가 기획 보도했던 '코로나&불교' 연속 시리즈가 제28회 불교언론문화상 신문 부문 우수상에 선정됐다.

조계종 총무원(원장 원행)은 11월 11일 "제28회 불교언론문화상 신문부문 우수상으로 신성민 · 노덕현 · 송지희 기자의 '코로나&불교' 연속 시리즈 보도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본지는 올해 초부터 코로나 이후 불교계가 나아갈 방향을 분석하는 일련의 기획 기사와 코로나가 상존하는 상황에서 스스로를 치유할 수 있는 콘텐츠를 소개하는 정보성 기사를 특집 기획 형태로 연속 보도했다.

5월 27일 부처님오신날 특집호에 게재된 '포스트코로나 & 불교'는 코로나 시대에서 불교의 상황을 진단했다.

9월 30일 본지 창간26주년 특집호에는 '코로나19 이후 불교계 변화'를 주제로 불교계 오피니언 리더 100인(출가자 50인 · 재가자 50인)을 설문 조사한 결과를 특집 기획으로 게재했다.

4월 한달 동안 제작 · 보도했던 '마음방역 · 셀프힐링'은 코로나 우울, 분노가 확산됨에 따라 불자와 국민들이 스스로 마음 · 심리 방역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정보성 기사로 구성됐다.

이와 함께 올해 불교언론문화상 대상에는 BBS의 '서릿날동안거'가 선정됐다. 방송부문 TV최우수상에는 KBS다큐멘터리 '매혹의 실크로드' 4부작이, 라디오최우수상에는 BBS의 '코로나19 극복발원 BBS 8시간 특별 생방송 아름다운 보시'가 수상했다.

신문부문 최우수상에는 불교신문의 법정 스님 열반 10주기 특별기획 '무소유의 향기를 찾아서'가 이름을 올렸으며, 뉴미디어 부문 최우수상에는 유튜브 '불로잡생'과 한마음선원에서 운영하는 유튜브 '마음꽃TV'가 선정됐다.

한편, 제28회 불교언론문화상 시상식은 11월 30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열린다.

신성민 기자

